

우리 서양건축사 교육의 반성

- 담론으로서 '서양건축사'를 해체하기 위하여 -

강 혁*

(경성대학교 건축학부)

주제어 : 담론으로서의 서양건축사, 지식과 권력, 재현, 오리엔탈리즘, 탈식민성

1. 들어가는 말

건축 역사는 (한국의) 건축학과 커리큘럼의 주요한 구성 분과를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서양건축사는 기축 과목의 하나이다. 이는 한국의 건축학과들이 예외 없이 서양건축사 수업을 개설하고 있는데도 잘 나타난다. 우리가 서구식 건축술을 수용하고 서구식 교육을 도입한 이래로 건축학과(혹은 건축학부) 수업에서 서양건축사가 빠진 적은 없었다. 오늘의 건축 현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건축'이라 부르는 활동과 언술이 거의 대부분 서구에서 비롯한 것이기에 서양건축사를 가르치고 배워야한다는 데는 별 이의가 없는 듯하다.¹⁾

근대적 건축교육이 한국의 대학에 도입된 이래로 다양한 학문 분과의 건축학으로의 진입이 있었고, 그동안의 여러 제도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들이 커리큘럼에 반영된 바 있다.

이런 외적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서양건축사 과목은 별다른 부침 없이 건축학과에서 부동의 개설과목으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건축 교육에서 서양건축사의 중요도를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지닌 비주류적 위상을 뜻하는 바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서양건축사가 일종의 교양과목 정도로 간주되면서 그 존재 근거나 교육방법 등이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서구 건축대학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건축의 역사, 특히 자신들의 역사인 서양건축사는 상당한 비중을 두고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석사과정(M Arch)이 주가 되는 미국 건축대학의 커리큘럼을 일별하면 스튜디오 중심의 설계 교육과 이론 및 역사 과목이 중심이 되는 구성 체계이다. 그 첫째 이유는 건축 디자인과 건축역사 교육과의 상관성이다. 이는 서구에서 건축 역사와 디자인이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배경과 함께 현대건축에서도 디자인의 타당성의 근거를 이론에서 찾고 있고, 이론의 가장 큰 수원지가 역사라는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일 것이다.²⁾

*교신저자, 이메일: hkang@ks.ac.kr
이 논문은 2011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

1) 본 논문에서 서양, 혹은 서구는 유럽과 미국을 가리킨다.

둘째로 건축사 교육이 학생들에게 ‘건축’이라는 분과(discipline)를 하나의 학문/실천 영역으로 이해시키고 건축에 관한 제반 이해와 개념을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건축이란 무엇인가, 건축에서의 의미와 가치와 판단은 어디에서 비롯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역사 교육을 통해 습득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래의 건축가가 건축을 보는 방식에 건축사 교육이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된다. 이런 이유로 그들에게 서양건축사의 비중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듯하다.³⁾

하지만 해방 후 반세기가 넘도록 서양건축사를 가르쳐 오면서 우리는 왜 그것을 가르쳐야 하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해본 적이 별로 없다. 그것은 서양건축사라는 과목이 원래부터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이 받아들였다는 뜻이며, 동시에 타자의 역사인 서양건축사 교육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은 채 수행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근본적 질문에 소홀하였기에 과거나 지금이나 서양건축사 수업이 타성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나 아닌가를 하는 의문이 있다. 건축사가 단지 죽은 옛날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삶, 혹은 현실 건축과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위의 질문은 부단히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⁴⁾ 사실 둘

이켜 보면 우리의 서양건축사 교육에도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기는 했다. 우선 해외의 서양건축사 텍스트(원서)를 주 교재로 쓰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국내 저자가 쓴 책이나 번역한 책으로 대체되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현재 시중에는 서양 건축사를 다룬 국내 저자들의 교과서들과 해외 저자들에 의한 역서들-주로 입문서나 해설서-로 넘쳐나고 있다.⁵⁾ 둘째로 서양건축사 과목을 건축사를 전공하지 않은 교수에게 맡겨졌던 전래의 인습이 사라지고 대다수가 건축사를 전공한 학자에 의해 가르쳐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로 인쇄 매체(책)와 도면을 교재 삼아 진행되던 수업은 범프로젝터 등을 이용한 시각 영상자료 중심의 교육으로 대체되었다.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 자료의 범람은 정보의 접근 가능성을 증대시켜 건축사 지식의 습득이 한결 용이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진정 의미 있는 개선인지는 다소 의문이 든다. 국내 학자의 손에 의해 다수의 교재가 출판되었다고 해도 거개가 대동소이하고 서구의 텍스트를 번역해 정리한 수준이라는 엄연한 현실이 있다.⁶⁾ 건축을 둘러싼 달라진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고 학습의 대상이 한국인 학생임을 배려하면서 요령 있게 쓴 저술은 발견하기가 그리

2) 잘 알다시피 이런 경향은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이 맹위를 떨칠 때 가장 강조되었다. 그 후의 네오모더니즘이라 부르는 경향도 참조점이 근대일 뿐 역사주의적 성격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최근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현대건축 디자인에서는 이런 성향이 희박해지고 있기는 하다.

3) 실제적으로도 미국의 주요 건축출판사의 간행물의 항목을 살펴보면 건축출판의 가장 비중의 하나가 건축역사 이론 비평 분야임은 쉽게 알 수 있다.

4) 미국의 건축사학회(SAH) 같은 곳이나 건축교육협회(JAE) 같은 곳에서는 일정한 기간 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학회나 논문집의 특집을 마련하고 있다. *How Not to Teach Architectural History*, JAE, Vol.

34, No. 1, Fall, 1980

Critical Historiography and End of Theory, JAE, Vol. 52, No.4, May., 1999

5)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책이 꾸준히 간행된다는 것은 일반사로서 건축사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P. Nuttgens, 윤길순 역, 『건축이야기』 (*The Story of Architecture*), 동녘출판사, 2001

J. Glancey, 강주현 역, 『건축의 역사』 (*The Story of Architecture*), 시공사, 2002

6) 대개가 학술적인 목적에서보다 자신의 수업용 교재로 집필되는 듯하다. 이는 여러 서양건축사 책 중 높은 평가를 받은 책이나 많이 팔리는 책이 없는 현실을 설명해준다.

쉽지 않다. 즉, 저자의 독특한 시각에서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서구 건축의 역사를 기술하는 텍스트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저자 특유의 주장이나 내용 전개가 담긴 저술이 드물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한글로 쓴 서양건축사가 상당량 출판되었지만 학계의 평가를 거친 정평 있는 텍스트는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건축사학의 저변 확대 덕분에 역사를 전공한 교수가 서양건축사를 가르치게 되었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서구 건축 특히, 근대 이전의 역사를 전공한 학자는 그 절대수가 작다는 문제가 있다. 학문 사회의 협소성과 전공자의 부족은 서양건축사 교육 자체에 한계로 작용한다. 특정 시대나 지역, 혹은 분야에 정통한 전공자가 결핍된 상황에서 서양건축사 학문 일반의 발전이나 통합적 저술은 요원하다. 더욱이 이른바 서양건축사란 것이 일종의 보편사 내지 전체사(통사)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란 적절한 수준에서 서구의 성과를 정리하거나 그들의 역작을 번역하는 작업 정도가 상한선으로 여겨지는 게 당연할 수도 있다.

국제화, 정보화가 가져다 준 지식과 정보의 확대와 진보한 매체 텍스트들의 범람도 무조건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사료가 넘쳐날수록 특유의 관점을 매개로 설득력 있게 추리고 엮는 역사서술 능력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는 가르치는 이의 관점이 투영된 체계적인 역사 교육이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지 못할 때 서양건축사는 고답적이어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지 못한 채, 그저 지나간 사건과 유물에 대한 지루한 지식의 습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최근 10여 년간 한국의 건축교육은 심대한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건축학과와 공학의 분

리와 대다수 대학의 건축학의 5년제의 채택이 그것이다. 더불어 커리큘럼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시대의 요청이 이끌어낸 새 교육 체제에서 건축 역사가 건축학에서 어떠한 비중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서양건축사는 또 어떤 위상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는 별로 없었다.⁷⁾ 수업 시간의 증가를 제외하고 서양건축사를 둘러싼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는 실로 의문스럽다.⁸⁾

이상의 사실은 우리가 서양건축사를 너무 안이하게 받아들이고 편하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리 자신의 역사인 한국건축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⁹⁾ 우리가 서구의 건축술을 바탕으로 건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서양건축사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왜 중요한가 하면 그 교육을 통해서 한국의 건축학도들은 서구 건축에 대한 일차적인 이해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기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축의 원천을 배우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서구 건축의 정체와 특성 -그런 것이 있다면- 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서양건

7) 건축역사학회에서도 심각한 논의나 연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중요한 사안이고 공동의 논리를 제공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했다는 점에서 책임의 방기가 아닐 수 없다.

8) 필자가 1970년대 건축과에 진입했을 때 커리큘럼에는 서양건축사, 현대건축론, 한국건축사 과목이 설치되어 있었다. 30년이 다되어가는 지금에도 전국 각 대학의 건축사 교육은 대동소이한 제목에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9) 한국 현대건축은 서구 건축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역사학계에서 주류 영역은 한국건축사와 동아시아사가 차지하고 있고 서구건축의 역사는 소외되어 있다. 그중에도 서구 근현대 건축의 역사에 비해 그 이전의 역사는 더욱 관심 밖이다. 이런 현실은 건축역사학회에서의 판도에도 잘 나타난다. 서구건축 전공자는 주변적 위치에 있는 것이다.

축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 문제는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의 질문이 실증된 채 관행적으로 수행되어온 이 땅에서의 서양건축사 교육에 있다.

본 연구는 우리의 서양건축사 교육의 반성으로 시도된 것이다. 우선 서구인이 배우는 서구 건축의 역사와 타자로서 우리가 배우는 서구 건축의 역사는 같을 수 없으며, 설사 같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실에서 출발했다. 더불어 서양건축사 교육이 한국의 건축학도에게 미치는 심각한/심대한 담론적 '효과'에 주목하고 그 이유와 내용을 탐색하고자 했다. 이러한 성찰적이고 비판적인 분석을 통하여 서양건축사 교육이 지금까지처럼 지속되어선 곤란하며,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할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넓게 보자면 역사기술(historiography)에 관한 것이며 인식론적(epistemological)인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지난 삼십년 동안 활발하게 대두된 인문학의 담론들과 수정주의 역사관에 기대어 이루어졌다.¹⁰⁾ 구체적으로 탈식민주의, 오리엔탈리즘, 탈구조주의 등 같은 이론들이다. 이런 이론들에 의거해 지난 30년 동안 유럽중심주의 신화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문화 이론에서 유일무이하며 특권화된 장소이자 역사로서 '서양(the West)의 해체'는 보편적 추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입장과 관점의 대이동을 무시한 채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서양건축사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

10) 구체적으로 1968년 붕기 이후 서구 인문 사회 분야의 변화한 담론 지형을 가리킨다. 건축학 혹은 건축 역사, 이론, 비평도 이 시기 이후 커다란 선회를 경험했고 본격적으로 비판적 담론이 전개되었다. 최근 그 실례를 담은 앤솔로지 형식의 담론집의 출판이 활발한 것을 볼 수 있다.

K. M. Hays, *Architectural Theory since 1968*, Cambridge, The MIT Press, 1998

와 변화를 제안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론적인 성격을 띤다.

2. 담론으로서의 서양건축사

역사는 과거 그 자체이기보다 과거에 대한 서사이다. 우리가 과거를 알게 되는 것은 오직 과거에 대해 관여하고 발언하는 역사를 통해서이다. 그 역사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에 의해 쓰여서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이런 자명한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역사가 과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진실한 재현(representation)인양 믿게 된다. 하지만 그런 역사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 역사는 결국 기록과 기억의 문제이며, 거기에는 그것을 쓴 저자의 입장과 관점이 숨어 있다. 동일한 과거의 사건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역사가의 시각이나 처지에 따라 전적으로 다른 역사가 쓰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관점이 바뀌면 대상이 달라 보인다는 간단한 이치는 역사가 누구에 의해 쓰여지는가라는 서술 주체의 문제를 제기한다. 역사가는 저마다 역사의 서사를 구축하는 주체이며 자신만의 이야기(narrative)를 구성해간다. 역사는 자신의 학문적 양심, 학문 공동체의 지적 전통에 의거해 역사를 쓰며 시대와 문화의 편견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를 쓰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의 선한 의도와 달리 역사가 역시 동시대의 시공간적 한계 속에서 역사를 쓰며, 그의 기술도 자신이 속한 시대와 사회의 선입견과 편향을 담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 큰 진실이다.¹¹⁾

11) 이런 견해는 해석학에서의 일반적 상식이며 해석학의 대가인 가다머의 일관된 주장이다. 시공간적 제약과 선입견이 역사가의 출발점이자 자산이라는 것이다.

G. Winke, 이한우 역,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지만 역사적 서사는 순수한 사실이거나 증언일 수 없으며 시대의 고유한 인식 틀 혹은 지(知:episteme)와 화자의 이해(利害), 입장에 의거한 ‘하나의’ 이야기(a history)일 뿐이다.¹²⁾ 그것은 과거에 대한 탐구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어떠한 지식도 중립적이지 않으며, 어떠한 역사 서술도 당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지적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오늘날 상식이 되었다. 역사가 계속 새로 쓰이고 또 비판적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과거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특별한 학문적 탐색, 곧 역사학은 과거에 대한 앎(지식)을 구축하는 일이면서 담론(discourse)의 생산이자 텍스트 생산이라는 성격을 띤다. “모든 역사적 지식은 지정학적이고 또 정치적”이라는 지적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¹³⁾ 담론이자 텍스트로서 역사는 화자 중심적 입장을 벗어날 수 없다. “역사란 기본적으로 상충되는 담론, 즉 인간과 집단과 계급이 자신을 위해 과거의 해석을 자서전적으로 구성해내는 전쟁터”라는 언명은 이 사실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¹⁴⁾ 중립적인 역사란 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건축사 기술 역시 일종의 담론 생산 행위이며 서양건축사 역시 그러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서양건축사가 담론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 담론을 구성하는 전제에 대해 물어야 한다. 이런 질문이 없을 경우, ‘담론으로서 서

양건축사’를 마치 원래부터 존재해온 자연스러운 것(즉 자연사)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담론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시간적 기원을 갖는 역사적 구성물(historical construct)임을 알게 된다. 그것은 모종의 시대적 상황 하에서 만들어졌으며 그런 식의 담론이 된 데는 나름의 이유와 배경이 있는 것이다. 시간 속에서 담론의 생성과 변환에 주목하는 이런 시각이 미셸 푸코가 말하는 이른바 ‘고고학적’ 태도일 것이다. 푸코에 따르면 담론은 철저히 권력과 관련하여 생산되며 이데올로기적 차원을 떨 수밖에 없다.¹⁵⁾

역사 기술에 대한 담론적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서양건축사’라는, 자명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담론 체제의 전제를 의심해볼 필요를 촉구하고, ‘서양건축사’라는 분과를 성립시키는 가정들을 재고해 보도록 한다. 사실 우리가 ‘유럽’ 건축의 역사를 별 생각 없이 “서양건축사”라고 부르고, 위대한 걸작들과 작가들로 이루어진, 일목요연한 장대한 이야기(master narrative)를 ‘진실’ 혹은 역사적 ‘사실’(fact)로 믿고 수용해온 데에는, 바로 ‘서양건축사’라는 학문적 전통, 혹은 지식(권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별 생각 없이 오랫동안 배우고 가르쳐온 우리 건축사 교육의 ‘역사’가 있었다는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한 분과의 학문적 전통의 위상이나 정전처럼 간주되는 지배적인 텍스트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존재한 것은 아니다. 그것들이야 말로 역사의 산물이며 역사적 기원을 지니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고유한 지적인 분석의 틀과 체계, 탄탄한 방법론과 설득력 있는 설명 능력 등이 구비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은 제도화의 과정을 통해 담론으

사상사, 1993, 130쪽

12) 이런 주장의 근거를 미셸 푸코는 ‘에피스테메’라는 용어로,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로 제기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13) 이성형, 『콜럼부스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까치글방, 2003, 19쪽

14) K. Jenkins, 최용찬 역,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Rethinking History), 해안, 1999(1991), 61쪽

15) M. Foucault, 이정우 역, 『지식의고고학』(L'archeologie du savoir), 민음사, 1992(1969)

로서 상징 권력을 확보하고서 과학적 ‘진리’를 주장하면서이다. 우리는 흔히 서양건축사가 ‘학문’으로 본디부터 존재했으며 고유한 연구 대상과 범위, 독자적인 연구 방법을 본래적으로 구비한 자율적인 분과인 듯 착각하는 성향이 있다. 즉, 그 기원을 망각한 채 ‘서양건축사’라는 학문 자체, 혹은 그 서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버릇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그 학문화의 역사, 즉 연구의 역사와 제도화 과정, 대학의 정규 분과로의 정착, 정전화(canonization)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질적, 기술적으로 우월한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적 서구 근대성의 전지구적 확대와 지배, 그리고 그에 따른 유럽 근대건축의 전지구적 이식과 수용이 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서양건축사’라는 것이 담론적 효과로 존재하는 상상적 산물이자 재현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객관적인 실재로 간주하게 된다.¹⁶⁾ ‘서양 건축’과 ‘서양건축사’가 선형적 존재로 우리의 의식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역사 교육을 통해 우리는 서양건축사의 ‘역사성’(historicity) 자체를 은폐하는 우를 저지르게 되는 셈이다.

“지배적인 어떤 이데올로기가 그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때문에) 그 지배의 합당함을 입증 받는다면, 바로 그 이데올로기의 벽을 파고들어야 한다.”¹⁷⁾ 고 지그문트 바우만은 말한다. 그것은 “역사를 자연화하고, 문화를 자연적 사실로” 하는 일이기¹⁸⁾ 때문이다. 담론 비판 내지 비판적 역사가 개입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푸코는

16) 미셸 푸코와 자크 데리다는 그런 안정된 체계, 본질, 실체에 대한 믿음이 담론 효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17) Z. Bauman, 이일수 역, 『액체 근대』(Liquid Modernity), 강, 2005(2000), 324쪽

18) Z. Bauman, 위의 책, 276쪽

서구 근대가 새로운 담론들이 계속 생산된 시대임을 강조한다. 고유한 (서구) 건축의 역사를 말하는 서양건축사 역시 기껏해야 근대에 즈음해 생겨난 신생 학문이며 하나의 담론 체계에 불과함은 주목될 필요가 있다.

최근 역사학 그리고 문화 이론에서 가장 큰 화두의 하나는 ‘서구/유럽중심주의’(eurocentricism)의 극복과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일 것이다. 서구 학계는 근대성에 대한 자기반성에서 유럽중심주의의 폐해를 각성하고 그 극복 문제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¹⁹⁾ 유럽중심주의가 유럽 주도의 세계 지배, 인종주의, 제국주의라는 패권주의적 역사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면서, 스스로가 문명 그 자체이며 보편성을 주장하고 진리 체계임을 강변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비서구인조차 이런 담론을 진실로 받아들여 설득되고 세뇌되었다는 주장은 상식이 되고 있다. 더불어 유럽중심주의가 갖는 타자를 용인하지 않는 배타성, 자기 중심주의적 오만, 그 결과로서 타인종과 타 문화, 그리고 자연 환경에 대한 미증유의 파괴 역시 상식이 되었다. 거기에 대한 비판과 극복으로서 오리엔탈리즘과 탈식민성 담론의 대두는 오늘날 주도적인 이론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²⁰⁾

캐더린 벨지는 “관념론은 자유로운 서구가

19) ‘유럽중심주의’는 유럽(서구)이 독특한 인종적, 문화적, 환경적, 혹은 정신적 특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다른 모든 공동체에 대해 항구적인 우월성을 가져다주었다는 사고(인식)이다.

J. M. Blaut, 김동택 역, 『식민주의자의 세계 모델』(The Colonizer's Model of the World),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1993), 23쪽

20) E. W. Said,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교보문고, 1992(1977)

Leela Gandhi, 이영욱 역,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Postcolonial Theory), 현실문화연구, 2000(1998)

R. J. Young, 김택현 역,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트랜스컨티넨탈리즘』(Postcolonialism), 박종철출판사, 2005(2001)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상, 즉 타자성 없는 세계에서 내가 점차 나의 기원을 구성한다는” 사상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주체가 스스로의 기원을 구성하는” 사상이다. 동시에 서구 문화가 삶을 외부와 무관한 “끊임없는 자기 구현 과정”으로 본다는 뜻이기도 하다.²¹⁾ 이것이 서구 인본주의(humanism)를 비롯하여 계몽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깔려 있는 근본 사상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자신의 문명과 문화가 어떠한 타자도 배제한 채 자율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구축된 것이라는 사고로 자신을 특권화 하는 것이다.²²⁾ 이는 나아가 서구는 이 세계를 지배하고 구원해야 하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 받았으며, 그것이 역사적 진보라는 사고를 형성했다. 이러한 서구의 자기 정당화, 신화화는 수긍될 수 없는 문화적 나르시시즘에 불과하며 역사적 증거와도, 동시대의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대 이후의 많은 사상가와 석학들이 지적한 바이다.²³⁾

거대 담론으로서 유럽중심주의는 모든 근대적 학문 분과에 깊이 스며들어있다.²⁴⁾ 유럽중심주의가 고질적인 것이 되어 극복은 고사하고 의식하기조차 쉽지 않게 된 데는 19세기 유럽이 만들어낸 분과 학문체계가 큰 역할을 했다. 건축사학 역시 그러하며 서양건축사가 대표적 사례이다. 건축사학은 18세기, 19세기 사이에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 성립하였다. 그것은 역사학, 지리학, 인류학, 민속학, 지역학,

미학 등 근대 학문 내지 과학의 탄생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또 그것들의 지원 속에서 성립하였다. 이 시기가 제국주의적 팽창과 식민화의 시기이며 이런 목적과 관점에서 타 문화(건축)의 발견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서양건축사는 근대라는 특정한 시기에 구축된 것이며, 그 서술 주체는 유럽인이고 철두철미 유럽 중심적인 서사로서, 외양상 역사적 사실/사건의 기록이자 재현인양 기술되고 있지만, 실상 그것이 담론인 한 일종의 신화이며,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²⁵⁾ 나아가 탈식민성 이론에 기대자면 서양건축사는 주인의 담론이고 지배의 담론이라고 규정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자신의 담론으로 받아들일 때 서구 건축의 문화적 우월성과 특권화(더불어 자기 문화의 열등성)를 당연시하고 내면화하게 되는 ‘오리엔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²⁶⁾

그러나 서양건축사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그저 하나의 역사적 ‘기억’이며, ‘만들어진 전통’으로서 서사/신화라는 것,²⁷⁾ 그리고 원래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어서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해체되거나 소멸될 수도 있는 ‘하나의’ 담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성립시키는 고유한 전제를 심문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존립하는 근거로서 사회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배경이 존재한다. 그러나 근대(성) 이후, 유

21) C. Belsey, 김진유경 역, 『문화와 실재』 (*Culture and the Real*),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8(2005), 57-78쪽

22) 이런 사고는 서양 근대 사상의 대부인 막스 베버, 헤겔, 마르크스에게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23) A. G. Frank, 이희재 역, 『리오리엔트』 (*Reorient*), 이산, 2003(1998), 92쪽

24) 최갑수, 『유럽중심주의 세계사를 넘어 세계사들로』, 한국서양사학회편, 푸른역사, 2009, 7쪽

25) 재현에 관해서는 빅터 테일러 외, 김용규 외 역, 『포스트모더니즘 백과사전』,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7(2001), 514-517쪽

26) 건축에서 탈식민성에 대한 논의를 담은 논문집으로는 G. B. Nalbantoglu, W. C. Tai, ed., *Postcolonial space(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Y., 1997

27) 홉스봄은 유구한 것처럼 보이는 서구의 많은 전통들이 실은 근대에 만들어진 것에 불과함을 지적한다.

E. Hobsbawm, 박지향 역, 『만들어진 전통』 (*The Invention of Tradition*), 휴머니스트, 2004(1983)

립중심주의 담론이 가진 폭력성과 유아론, 자아도취와 자기모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그것의 존립이 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근본적인 비판에 봉착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백색 신화’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탈식민주의의 도전은²⁸⁾ 유럽중심주의의 해체와 탈중심화로 이끌고 있다.²⁹⁾ 유럽 중심의 세계사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담론으로서 ‘서양 건축사’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비판적 역사기술’(Critical Historiography)과 수정주의 역사학의 대두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역사기술 자체를 물으면서, 그 이론적 근거와 토대, 이념적 배경을 들여다본다. 소위 ‘전통적인’ 시각에 회의와 교정을 요구하는 최근 탈근대 역사학의 동향은 역사기술 방식에 일대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 여파는 건축사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³⁰⁾ 근대 건축의 역사를 다시 쓰도록 하는가 하면³¹⁾ 이른바 서양건축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이동을 낳고 있기도 한 것이다.

3. 서양건축사의 기원과 신화

잘 알려져 있듯이 건축사학이 아카데미의

학문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후반 부터였으며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체계화되었다. 초기 단계에 건축사는 과거의 유적과 유구를 발굴 조사하고 문헌과 실물 자료(사료)의 고증학적 연구가 위주인 사실 중심의 역사였다. 고고학과 문헌학을 바탕으로 조사와 정리에 바탕을 두는 실증사학적인 연구 방법은 최근 까지도 건축사학의 주요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³²⁾

그러나 건축사학이 하나의 학문 분과로 격상한 것은 독일 관념론을 배경으로 하는 조형 예술사의 일환으로이다. 미술사의 방법이 건축사에 적용되었으며 형식(form)과 양식(style)을 분석함으로써 작품의 특성, 개념과 의미, 시대적 발전과 이념 등을 탐구하는 학문적 전통이 수립되었다.³³⁾ 독자적인 분석의 방법을 통해 건축의 역사를 기술하고 설명하게 됨으로서 근대적인 학문 분과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건축사학의 성격과 특징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형태 중심의 미학적 평가가 건축을 보는 주류적 입장이 되었고, 건축사를 양식의 교체 변천으로 기술하며, 기념비적인 건물 중심으로 시대를 정리하는가 하면, 미적 성취를 크게 평가하여 거기서 정신성을 찾고자 하는 건축사학의 오랜 습속은 바로 이런 역사적 태동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³⁴⁾

28) 로버트 영, 김용규 역, 『백색신화』(White mythology), 경성대출판부, 2008(2004)

29) 여기서 서양의 해체와 탈중심화는 무엇보다 문화와 담론으로서 이다. 그러나 서양이라는 견고한 실체가 신화화되면서 흔들리고 있음도 사실이다.

30) 건축사에서 이런 입장을 처음으로 천명하고 실천한 사가로 타푸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M. Tafuri, 김일현 역, 『건축의 이론과 역사』(Therie e storia dell' architettura), 동녘, 2009(1968)

31) 구체적으로 헤이즈, 비들러, 콜로미니, 위글리, 자점백 같은 소장 사학자들의 연구를 들 수 있다.

M. Jarzombek, A Prolegomena to Critical Historiography, JAE, V. 52, N.4, 1999, pp.197-206

32) 강혁, 「서구 근대건축사의 기술과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논문, 1992, 40쪽

33) 19세기 학문으로서 건축사학, 그 사관과 미학적 관점에 미친 헤겔 관념론의 영향은 아주 잘 알려져 있다. 콰브리치에 의하면 헤겔은 미술사학의 원조이며 이후 근대까지 미술사는 그의 역사철학과 미학의 재해석에 불과하다고 한다.

E. H. Gombrich, "In Search of Cultural history" in *Ideals and Idol*, Oxford, Phaidon Press, 1979, pp. 24-60

34) 이런 식의 서양건축사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로 펄스너의 『유럽건축사 개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N. Pevsner, 김복지 외 역, 『유럽건축사 개관』(An Outline of European Architecture), 태림문화사,

중요한 것은 건축사학, 그리고 서양건축사 연구가 100여년 남직한, 비교적 역사가 짧은 신생 학문이며 19세기의 시대적 환경과 정신적 풍토, 그리고 문화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탄생하였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것은 여타의 근대적 학문 분과의 성립과 더불어 탄생했으며 주로 고고학과 미술사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³⁵⁾ 또한 당대의 제국주의 학문이었던 지리학, 고고학, 민속학, 인류학 등의 학제적 도움에 힘입었음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동시대가 식민주의 시대이며, 서구가 인종, 문화, 환경, 심성에 있어 항구적인 우월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유럽중심주의 담론이 형성된 시기라는 사실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건축 역사학의 기원에 대한 이해는 ‘담론으로서 서양건축사’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유럽에서 건축물이 지어진 역사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것에 대한 연구는 근대 즈음에 비로소 이루어졌으며, 우리의 서구 건축(의 역사)에 대한 앎도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에 서구는 근대화/식민화의 역정을 전지구적으로 추진하거니와, 그 과정에서 그리스와 로마 건축의 발견과 발굴, 이집트와 소아시아, 인도 건축의 발견이 진행되면서 서구 건축의 역사도 그 외연을 넓혀 갔음을 알 필요가 있다.³⁶⁾ 즉 타 세계, 타 문명의 건축의 발견을 통해 서구 건축문화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타자를 자기 역사의 영토에 편입시켜간 역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동시대에

1988(1945)

35) D. Watkin, 우동선 역, 『건축사학사』 (*The Rise of Architectural History*), 시공사, 1997(1980)

36) 로마의 폼페이와 헤라클라네움의 발굴,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과 조사, 슬리만의 미케네 발굴 등이 그러하며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동방에 대한 대대적인 탐험과 발굴이 이루어졌다.

서구 근대성은 과거와 현재, 자기와 타자를 구분하면서 현재(modern, the new)와 자아를 특권화 하는 동시에 자신을 보편화하고 비서구와의 차이를 담론/인식으로 생산하였다.³⁷⁾ 결국 우리가 아는 ‘서양건축사’는 이 시기의 이런 지(知:에피스테메)를 기초로 구성되었으며, 불가피하게 문화 제국주의적 시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서양건축사라는 이름의 거대 서사 내지 거대 담론의 기술 동기 역시 흥미롭다. 즉, 르네상스나 바로크, 고대 로마나 고딕 같은 시대나 양식으로 연구되던 건축사학이 서양건축사라는 이름으로 고대부터 동시대에 이르는 대서사로 통합되어 기술되는 사건의 배경이다. 물론 저자 개인으로서는 지적 사명감이나 야심을 들겠지만 이런 식의 역사 기술이야말로 말로 시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본격적으로 시도되기 시작한 통사로서 서양건축사는³⁸⁾ 각 분야사, 시대사의 성과를 종합하는 역사 기술이지만, 담론으로 보자면 유럽중심주의적 시각이 함의하는 서구 문명/문화의 내재적 자율성, 고유한 역사성, 예술적 미적 특수성³⁹⁾을 ‘보편사’로 입증하는 서사의 구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학문(진리)

37)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의 가장 큰 논지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건축에서의 문제 제기는

“Orientalism” *Design Book Review*; Issue 29/30, Cambridge, The MIT Press, 1993

38) 임석재, 『서양건축사: 기독교와 인간』, 북하우스, 2003, 10쪽

39) 건축의 본질이 공간이며 내부 공간의 진화 발달과 그 미학적 고려가 서구 건축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이 시기의 주장 역시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힐데브란트, 립스, 슈마르소 등으로부터 프랑클, 기디온, 제비에 이르는 건축사자들, 이론가의 암묵적인, 그러나 일관된 주장이다.

B. Zevi, 강혁 역, 『공간으로서의 건축』 (*Architecture as Space*), 집문사, 1989(1974)

Van de Ven, 고성룡 역, 『건축공간론』 (*Space in Architecture*), 기문당, 1987(1980)

체계로 수립시키는 지식 생산이기도 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896년에 나온 플렛처 경(Sir B. Fletcher)의 고전적인 건축사 책이다. 퍼거슨(Fergusson)의 것과 함께 영미권에 선 가장 정평 있는 초기의 서양건축사 저술로 꼽히는 그 텍스트는⁴⁰⁾ 오늘날까지 계승자의 손에 의해 판을 거듭하며 꾸준히 출판되고 있다.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비교사적 방법(comparative method)’을 동원하고 있다는 데 있다.⁴¹⁾ 즉, ‘진화’하고 ‘발전’하는 서양 건축의 역사와 변화 없이 정적인 비서구 건축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비역사적 양식’이라는 제목 하에 인도, 중국, 일본, 중앙아메리카, 사라센 건축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역사 기술의 가장 큰 핵심인 ‘양식사’는 바로 유럽 건축이 진정 역동적인 ‘살아있는’ 역사로 간주하는 근거가 된다.⁴²⁾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역사 인식이 얼마나 비합리적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지는 잘 알려져 있으며, 설혹 서구 특유의 양식사적 진화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서양건축사를 특권화 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의 역사 기술은 동시대의 건축에 대한 관점과 인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다른 어떠한 예술 분야보다 건축이 외적인 영향 하에 존립하는 것임에도 외부 맥락을 사상

해 버린 채로 건축 자체의 자율적 역사로 환원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켰다. 다수의 서양건축사 텍스트들이 건축 내적 가치에 탁월성의 근거를 두면서 그 외부의 물적 조건, 사회적 환경, 이념과 지식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 하나, 이런 역사 기술은 서양건축사에서 철저히 ‘타자’, 즉 비서구가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주지하다시피 -유럽 문명이 그러하듯- 유럽 건축의 성립 역시 외부 타 문명과의 교류 및 영향 없이 전혀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 서양건축사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고찰은 거의 찾아 볼 길이 없다. 그러한 사실은 저자들이 여전히 유럽중심주의적 시각에 빠져있음을 드러낸다. 여기에는 특정한 시대의 조건과 환경, 문화와 기술, 권력과 인식의 산물로서 유럽건축이라는 사고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서양건축사’ 텍스트들은 서구 건축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통사로서 압축적 요약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것은 대개 건축학도를 위한 교재로, 혹은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로 집필되며, ‘서양 건축’이란 것을 내용적 실체로 받아들이고 시간 속에서의 거시적 변화상을 파악하도록 쓰였다. 재미있는 것은 영어권 저자에 의한 서양건축사의 책 제목이 “A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인 경우도 있지만 “History of Architecture”라고 명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에게 건축의 역사, 곧 대문자 A로 시작되는 건축(Architecture)의 역사는 서구 건축의 역사에 다름 아닌 것이다.⁴³⁾

통사 형식으로 된 ‘서양건축사’ 텍스트들은

40) Sir B. Fletcher, *A History of Architecture*, Ed. by J. Musgrove, Butterworths, London, 1987

41) 현재 20판(D. Cruickshank 편집)이 나온 상태이며 19판(J. Butterworth 편집, 1987) 부터는 ‘comperative analysis’란 말이 빠져있다.

42) 그의 건축사 담론은 끊임없이 서구와 비서구, 역사적인 것과 비역사적인 것의 이분법적 범주화를 통해 건축 자체의 영역을 재규정하고 서구의 남근 중심적 시각을 확장/교정해 왔다.

G. B. Nalbantoglu, “Toward Postcolonial Opening: Rereading Sir Banister Fletcher’s History of Architecture”, *Assemblage*, N. 35, Cambridge, The MIT Press, 1988, pp.6-17

43) D. P. Crouch, *History of Architecture: Stonehenge to Skyscrapers*, McGraw-Hill, NY., 1985

M. Trachtenberg, *Architecture: From Prehistory to Post-Modernism*, Harry N. Abrams, Inc., NY., 1986

방대한 종류를 차지하지만 대다수가 비슷한 구성 체계를 가지고 있다. 상당수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하여, 거의 예외 없이 그리스, 로마를 거쳐 중세(초기 기독교,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근대로 이어지는 일관된 구성이다. 시대 구분과 지리적 영역, 문명과 양식이라는 범주가 이런 체계화의 근거이며, 일종의 학문적 전통이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서양(the West), 혹은 유럽 문명의 건축의 역사를 근거 없이 부풀려 놓았고 공간적(지리적), 시간적 범주의 혼동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고대 문명이며, 메소포타미아는 중동(서아시아)에서 발생한 가장 오래된 문명이다. 유럽 문명과 상관없는 이집트 건축과 메소포타미아 건축이 서양건축사에 수록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아마도 이집트 건축과 메소포타미아 건축이 서양건축사에 실리게 된 가장 중요한 까닭은 그들 없이는 그리스와 로마라는 지중해 문명의 건축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⁴⁴⁾ 그러나 대부분의 서양건축사의 기술에서 그런 영향 관계나 상관성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스스로가 기원인 자율적인 역사라는 사관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건축의 수록은 서양건축사의 담론 체계와 서술이 주장하는 바의 인식 자체를 교란하는 모순이 된다. 그러면서 서구 건축의 진정한 기원이라 간주되는 그리스 문명과 건축은 아무런 선대 문명의 영향 없이 갑자기 탄생한 것처럼 기술되곤 한다.⁴⁵⁾ 하지만 그리스 전기 예술과 건축에

서 아시아나 이집트적 요소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⁴⁶⁾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건축을 무조건 서양(유럽) 건축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⁴⁷⁾ 그리스(헬레네 세계)와 로마 제국은 고대 지중해 세계의 일부로 탄생한 지중해 문명으로 당시의 보편 문명이었다. 그리스와 로마 문명 자체가 선대 문화를 흡수한 혼혈적인 것이었으며⁴⁸⁾ 그것은 일차적으로 지중해 전역(북아프리카,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등)을 망라하는 것으로 알프스 북쪽의 유럽과는 지리적으로는 거리가 있었다. 그리스 로마 문명의 계승자는 유럽만은 아니었다. 결국 그리스와 로마가 서양이 되는 이유는 유럽인들 스스로가 자신을 그 적자로 간주/자처했기 때문이다.

로마인들에게 오늘의 서양, 즉 유럽은 그들과 무관한 야만적 세계로 간주되었으며, 그리스 로마의 문화는 유럽 못지않게 비잔틴 문명과 이슬람 문명에게로 계승되었다. 이슬람 건축이 상당 부분 로마 건축의 영향 속에서 성립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공간

45)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언어와 비극』, 도서출판 b, 2004, 136쪽

가라타니 고진은 이렇게 설파한다. “오리지널이라는 것, 즉 기원적인 것에는 큰 가치는 없다. 그것은 항상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스 철학의 기원에서조차 그랬다. 그것은 외국인 혹은 전지중해의 교통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46) 고대 그리스가 이집트 문명의 위성 문명에 불과하다는 『블랙 아테나』로 마틴 버벨은 서구 사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47)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 로마 건축이 서구(유럽) 건축이 아니라거나 서구 건축의 기원이 아니라는 내용이 아니라 ‘서양건축사’ 교육이나 텍스트 독해를 통해 그런 이해를 갖게 되는 과정에서의 인식의 문제이다. 즉, 유럽만이 그리스, 로마의 순혈적인 적통이라는 것과 그리스 로마를 계승한 다른 문명에 대한 경시와 경멸이다.

48) 김봉철, “고대 그리스 문명은 유럽적인 문명인가”, 『유럽중심주의 세계사를 넘어 세계사들로』, 한국서양사학회편, 푸른역사, 2009, 92-135쪽

44) “메소포타미아가 서구 문명의 요람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도시라는 것을 처음 만들었다”것을 상기하라.

John Reader, 김명남 역, 『도시, 인류 최후의 고향』(Cities), 지호, 2006(2002), 79쪽

적으로 이슬람 세계에 의해 장기간 차단되었던 그리스가 유럽에 편입이 되는 것은 19세기로, 그 전까지는 접근할 수 없는 이방 지역이었다는 사실 역시 지적되어야 한다. 그리스 로마를 전적으로 서양 혹은 유럽이라 부를 근거가 희박한 것이다. 오직 유럽의 일방적 전유에 의해 그것은 서양이 될 뿐이다.

비잔틴 문명의 건축이 서양건축사에 편입시키는 데서도 문제가 노출된다. 비잔틴은 동로마에 대한 경멸적인 명칭이다. 로마의 진정한 계승자가 동로마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자신들이 로마의 계승했다고 해석한다. 신성로마제국의 후예인 서유럽인은 비잔티움인들을 그리스인이라고 폄하해 불렀으며 비잔틴 문명의 후계자인 동방정교나 동유럽을 이단 내지 이방시 했다.⁴⁹⁾ 1453년 비잔틴 제국의 멸망 후 유럽인들에게 서양중세사는 서유럽만의 역사였다. 한마디로 두 세계는 단절된 세계였던 것이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서양건축사에선 비잔틴 건축은 로마네스크, 고딕과 더불어 중세 기독교 건축으로 취급되어 다뤄지고 있다. 비잔틴 건축을 서양(유럽) 건축에 편입시키는 데에는 심대한 자기모순이 있는 셈이다. 비잔틴은 독자적인 문명으로 유럽 가톨릭과는 다른 기독교 문명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⁵⁰⁾

여러 역사학자들이 지적한대로 우리가 유럽이라 부르는 문명의 본격적인 성립은 중세 기독교세계의 수립과 평행하며, 지리적으로는 알프스 북쪽에서, 시간적으로는 서로마 멸망 후

5세기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웹스너의 저명한 『유럽건축사 개관』(*An Outline of European Architecture*)이 4세기 기독교 건축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⁵¹⁾ 그러나 대다수 서양건축사 책은 지리적 용어인 유럽 대신 서양(the West)라는 말을 남발하며 고대까지 소급하여 마치 일목요연한 서양 건축의 진화사/발전사가 존재하는 듯 기술한다. 그러한 역사 기술은 비서구 고대 세계의 문명이 서양건축사로 수렴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하며, 전대 문명과 건축이 소위 ‘서양’ 건축의 성립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감을 주곤 한다.

이런 역사 해석과 모순되는 것이 ‘서양건축’의 기술에 나타나는 자율성과 특이성의 강조이다. 즉 서구 건축이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이며 특별한 현상인 것처럼 신비화하는 담론이다. 소위 ‘서양(유럽)’의 성립이 그들이 경멸해마지 않는 동양, 혹은 비서구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페르시아, 이슬람, 인도, 중국, 아메리카 등- 의 영향과 충격 없이 가능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이제 상식으로 통용된다. ‘서양’ 건축 역시 마찬가지로 인데도 그러한 교류사와 영향사를 생략한 채 공식적인 서양건축사는 고유한 자신의 전통만을 강조할 뿐이다. 그러나 순수한 서구의 건축적 전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문명권의 건축과의 차이와 비교 없이 어떠한 유럽적 건축

49) 김차규, “비잔티움 세계와 서유럽”, 『유럽중세주의 세계사를 넘어 세계사들로』, 140-162쪽

50) 비잔틴은 오늘의 동유럽과 서유럽의 경계를 가르는 기원이 되고 있다. 비잔틴 제국, 그리고 정교 문명에 속하는 불가리아, 그리스, 아르메니아, 러시아는 서구와 무관한 세계로 간주되었다. 그리스, 러시아 정교 문명이 유럽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이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피요르트 대제의 서구화 이후이다. 비잔틴 건축이 서양건축이라면 당연히 러시아 교회건축도 편입되어야 할 것이다.

51) 웹스너는 그리스, 로마, 비잔틴이 “우리와는 다르지만 우리의 뿌리가 되는 문명에 속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는 한 때 비잔틴에, 그 후에는 러시아 계열에서(영향권에?) 속한 불가리아를 예로 들며 비주류적인 것, 비유럽적인 것은 비서양적인 것이기에 자신의 책에서 빼었다고 밝힌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유럽 문명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셈이고 그것은 사실 이태리, 프랑스, 독일, 영국에 다를 아니다. 그는 서양 문명은 “문화적인 이유에서” “명확한 개체요 생물학적 개체”라고 주장한다. 웹스너는 서구 문화의 고유성, 동일성을 주장하지만 공간적, 시간적으로 서양을 서유럽으로 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직하다. N. Pevsner, 위의 책

의 규정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서구 건축과 동일한 뿌리를 지니고 있는 이슬람 건축을 들여다보면 금방 드러나는 사실이다.

이슬람 건축사는 예외 없이 서기 622년 헤지라 사건을 기점으로 역사 서술을 시작한다. 서양 건축사만큼이나 방대하고 다양하며 복잡한, 지리적으로도 더 광범위한 이슬람 문명의 건축사를 쓰면서 그 누구도 그 기원을 헤지라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⁵²⁾ 이슬람 건축 역시 로마를 비롯한 지중해 문명을 모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서양건축사식 기술이라면 이슬람 건축 역시 그 기원을 로마와 페르시아, 서아시아로 잡아야 할 것이며 고대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유럽 기독교 문명(건축)과 이슬람 문명(건축)이 이란성 쌍생아라는 사실, 이슬람 문명과 건축의 유럽에의 영향이 지대하였다는 사실⁵³⁾, 서양건축사의 지리적 확장성과 양자의 친연성을 고려할 때 비잔틴과 달리 이슬람 건축을 서양 건축과 별개로 취급하는 이유를 묻게 된다.

서양건축사의 핵심적 문제는 서양과 동양을 구분하는 편의적이고 임의적인 구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다. 고대 그리스가 자신(헬레네)과 페르시아를 경계 짓던 “역사적으로 우연하며 별 필연성도 없는” 공간적 범주화가 근대 유럽의 부상과 득세와 더불어 세계 문명권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서양 아님’ 외에 아무런 공통점도 없는 여러 문명들이 줄지

에 동양 혹은 아시아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줄세워져 범주화되었다. 사이드는 서양과 동양을 나누는 선은 ‘상상적인 지리학’에 불과하다고 설파한 적이 있다. 실제로 오늘날 중동이라 불리는 지역의 메소포타미아나 이슬람 문명은 서구 문명과 훨씬 동질적이고 인도나 동아시아와는 별 상관이 없다. 동양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서양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서양건축사야말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19세기에 만들어진 담론’에 불과하며, 서양건축이라는 것의 동일성과 그 정합적인 실체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서구의 유럽중심주의 이데올로기와 막강한 지식 권력에 힘입어 ‘집단적 기억’으로 자리 잡고 현실에서 ‘진리’ 인양 작동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⁵⁴⁾ 우리가 서양건축사를 허구적 신화로 간주한다면, 생산된 지식으로서 그것의 적실성이 의문시되는 지금, 자연스럽게 그 해체를 예상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장대한 드라마로서 서양 건축사 같은 것은 없다.⁵⁵⁾ 서양건축사는 실은 서양건축사가 아니라는 것, 있다면 발명된/구성된(협소한) 유럽 건축의 역사가 있을 뿐인 것이다.

4. 비판적 역사기술과 서양건축사

“현실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며, 문화가 우리에게 표상/재현해주는 이 세계에 대한 그림이다”라는 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인식은 표상/재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현실은 과거의 산물이고 그 과거는 (쓰여

52) J. D. Hoeg, *Islam Architecture*, Rizzoli, 1987(1975)
H. Sterlin, *Islam*, V.1, Taschen, 1996

53) 그리스 철학을 비롯한 고전학, 수학, 화학 등 무수한 지식, 과학 기술이 이슬람으로부터 서구로 흘러갔다. 건축 역시 예외 아니다. 한 가지 예로 250년 간 6차의 십자군 원정은 이슬람의 영향이 고딕 건축의 미술, 수학, 행동 양식에 작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R. F. Jordan, *A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Thames and Hudson, 1969, p.128

54) 서양건축사 담론은 라캉의 용어를 빌린 자아(유럽)을 이상화한 상상계적 이미지(환상)이지만 동시에 현실 세계(상징계)의 ‘진리’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55) 일찍이 마르크 블로흐는 “유럽사(서양사) 같은 것은 없다. 오직 세계사만이 존재한다”고 설파했다.

진) 역사에 의해 표상/재현되기에 담론이자 텍스트로서 역사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는 가장 유력한 매개적 통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양건축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과거 역사에 대한 지식을 얻는 일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서구 건축, 나아가 건축 자체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게 된다.

19세기에 연원한 서양건축사의 학문적 기획이 그 담론 효과를 통해서 서양 건축의 존재와 동일성을 당연시하고 그것의 보편적 위상을 수락하도록 하는 것, 비서구(=동양)이라는 타자와의 비대칭성을 통해 자신의 독자성을 확인하고 문화적 우월성과 헤게모니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 나아가 서구적 인식 체계 속에서 지상의 모든 건축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⁵⁶⁾ 또한 그것은 마치 하나의 정통적인 건축의 역사가 존재 하는 듯한 착시에 빠지도록 하면서 양식 중심의 역사, 걸작 중심의 역사, 중심 지역(불, 독, 영, 이) 중심의 역사, 시각 중심적 역사, 미학적 성과 중심의 역사, 지배자 중심의 역사, 대가와 기념비 중심의 역사를 곧 건축의 역사로 간주하는 태도를 길러주기도 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문제는 서구 근대(성)의 산물인 서양건축사라는 학문 분과의 모순과 신화성이 드러나고 그 극복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도⁵⁷⁾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낡은 '서양건축사'를 불변의 분과로 고집하고 그 내용을 고수하는 태도가 유력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다. 타자의 담론을 자기의 담론으로 착각하고 내면화하고 있는 셈이다. 오리엔탈리즘

56) 예를 들어 Architecture(건축)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엔 영조(營造) 혹은 조영이라는 집짓기가 있었다.

57)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그것이 자신의 역사이기에 고수하는 경향도 있으며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고수하는 경우도 있다.

의 관점에서 보면 서구 건축사에 대한 성찰 없는 교육과 배움은 '의식의 식민화'를 꾀하고 자발적인 지적 복종으로 인도한다.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서구건축의 탁월함을 승인하고 동경하는 인식의 왜곡을 초래한다. 그 과정에서 비서구 건축은 주변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서구 아님'에서 동양(아시아)의 정체성이 제공되면서 비서구 건축 문화가 지닌 특이성과 차이가 무화되고 동질화되기도 한다.⁵⁸⁾ 하지만 동서 건축의 경계 지움과 그에 따른 서구의 자기 인식이 근대라는 특수한 시간의 산물이며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롤랑 바르트가 독사(doxa: 역견)라고 부른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실재가 아니며 라캉적 의미에서 '상상적'인 것으로 (허구적) 이미지에 불과하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서양건축사 교육을 통하여 별 의문 없이 그런 시각을 수용해 왔다는 것이며, 인식 내부에 깊이 각인되어 현실(실제)로 통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건축적 인식이 우리 저자들에 의한 서양건축사 텍스트에도 깊이 각인돼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행히 근대 이후의 세계사적 전개나 여러 역사적 조건의 급격한 변화는 그런 식의 사고를 급속히 낡은 것으로 바꾸고 있다.⁵⁹⁾

따라서 우리가 이미 다 근대인이 되었기에 저들의 서양건축사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

58) 더불어 자신(동아시아/한국)의 건축조차 서구라는 거울에 비춰보고 판단하는 습성이 자리 잡게 된다.

59)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이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상상적, 인식적 공간이며, 차이를 통해 열등한 타자(the other)로서 동양을 규정하면서 동양의 존재 확인과 그것의 배제를 통해서 자기의 동일성을 확보하려는 지적 구조물이며, 동시에 타자인 비서구를 지배하기 위해 서구가 가공해낸 담론-권력임을 가르쳐준다. 오리엔탈리즘은 근거 없는 편견과 착각의 산물이지만, 그럼에도 '공인된 진리'로 자리 잡고 역사적 실체가 되어 서구의 비서구에 대한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하며 현실의 헤게모니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을 갖는다.

다고 생각하기보다 그 폐해를 자각하면서 대안적 모색의 가능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일 것 같다. 첫째는 서구적 보편성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 입장에서 비판적 역사기술(critical historiography)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역사기술의 전제를 회의하면서 어떠한 역사 기술도 자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대안적 역사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의 필요성이다. 서구 건축 문화를 절대시하지 않고 상대화할 때 더욱 생산적인 소통과 교류의 가능성이 열리며, 서구식 관점에 빠져 무심하게 보았던 타자의 문화, 즉 비서구 세계의 다른 건축 문화와도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에 설 때 우리는 하나의 대문자 역사(History)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역사들'(histories)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비서구적 관점에서의 역사가 필요한 이유를 자각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서양건축사에 대한 무조건적 답습과 재생산을 반성하게 하며 저들과 다른 시각에서 건축사를 쓸 동기를 부여한다.⁶⁰⁾ 사실 이런 반성과 자각에서 출발한 서구 인문학, 역사학계에서의 노력은 일반화되고 있으며 한국 서양사학계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⁶¹⁾ 이런 측면에서 서양건축사라는

제목으로 텍스트를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일은 우리 건축계의 후진성을 입증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간행된 건축사 텍스트 중에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례를 한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째는 코스토프 교수의 『건축의 역사』(*A History of Architecture: Settings and Rituals*)이다.⁶²⁾ 그의 텍스트는 오만하게 '건축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서구 건축의 역사를 쓰고 있지 않다. 비서구 터키인으로 미국 저명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그가 쓴 역사는 기존 서양건축사의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다.⁶³⁾ 그는 서구의 기념비적인 건축물 중심의 기술에서 벗어나 도시를 포함한 건조된(built)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포괄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시공간적 맥락과 배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문화사로서 건축사'를 시도한다. 물론 코스토프의 역사가 가진 한계는 명확하다. 그의 지적 역량과 접근의 제약 때문이겠지만 여전히 기념비와 유럽 건축의 비중이 지대하며 자신의 출신 지역에 대한 선호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집필의 의도와 다르게 본의 아니게 서구의 것이 역사적 맥락에서 조명되는데 비해 비서구 도시와 건축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도 결점으로 지적되어야 한다.⁶⁴⁾ 그러나 비록 서구와

60) 이런 점에서 2003년부터 시작된 임석재 교수의 서양건축사 시리즈(5권)는 한국 학자의 손에 의한 서구건축사의 본격적 저술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평가해야 하리라 본다. 그러나 임교수는 '전통적인' 서양건축사의 기술을 고수하는 관계로 본 논문이 제기하는 유럽중심주의와 서양건축사 담론의 내적 모순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61) 주경철 교수의 노작이 좋은 예이다. 그가 펴낸 『대항해시대』와 그 축약판이라 할 『문명과 바다』는 지리상의 발견, 혹은 대항해 시대라 불리는 16세기 이후 19세기까지의 근대 세계의 세계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서구의 세계 정복, 그리고 서구 문명과 그 가치의 세계 전파 시대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이성적/합리적인 서구 문명의 물질적, 기술적, 문화적, 제도적, 도덕적 우월성을 꼽게 된다. 이

런 시각은 우리가 서양사 수업에서 습득한 것이고 서구인들이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나 주교수의 연구는 그런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 보여준다. 해양사 연구를 통해 근대 세계의 형성이 서구 일방이 아니라 세계 여러 문명의 참여와 공헌에 의해 가능했으며, 최종적 헤게모니를 잡은 서구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며 설득력 있게 기술하고 있다. 한마디로 특별하고 우월한 서양과 열등한 동양의 불균형이 초래한 근대라는 서구중심주의 담론에 일대 교란을 가하는 것이다.

62) S. Kostof, *A History of Architecture: Settings and Rituals*, Oxford U. Press, Oxford, 1985

63) S. Kostof, 위의 책, preface

64) S. Kostof, 위의 책, pp.216-223

비서구의 균형에서 큰 문제를 노출했을망정 이런 기술의 시도 자체가 지닌 의미가 폄하될 순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텍스트에 대한 호의적 평가와 유수 대학에서의 교재 채택에 서도 알 수 있다.

둘째로 언급할 것은 『세계건축사』(*A Global History of Architecture*)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나온 텍스트인데, 서구 중심사관에 매몰된 '서양건축사'의 폐해와 비서구 건축에 대한 의도적 간과와 축소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⁶⁵⁾ 우선 세 사람의 저자가 한 사람은 서구인이며 한 사람은 중국인, 한 사람은 인도인으로서 역사기술상의 균형을 취하고자 했다.⁶⁶⁾ 여기서 서구 건축은 여러 문명의 건축 중에 하나로 등장할 뿐이다. 이런 입장은 서구, 비서구의 이분법 자체를 거부하며, 그것은 책에 사용된 세계 지도가 우리가 흔히 보아온, 서구 혹은 유라시아 중심적 도법에서 탈피해 전 지구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구도를 취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비록 연대기적, 지역적 기술이라는 엄연한 한계가 있지만 이 세계사를 일별하기만 해도 종래의 소위 서양 건축사라는 것이 얼마나 왜곡과 편견 덩어리인지 깨닫게 된다. 한 예로 별다른 문화적 성과가 없었던 유럽건축사의 공백기가 얼마나 길었는지, 또 그동안 타 문명은 얼마나 위대한 건축적 성과를 생산하고 있었는지를 가지적 증거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이 텍스트는 내재적인 자율적 역사로서 서양건축사라는 신화를 붕괴시키는 미덕을 지니고 있기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⁶⁷⁾

65) M. Jarzombek, F. Ching, V. Prakash, *A Global History of Architecture*, John Wiley & Sons, Inc., 2007

66) 마크 자점백은 미국의 중견 건축사학자로서 MIT 건축대학의 역사, 이론, 비평 프로그램 교수이자 학과장이다. 프란시스 칭은 워싱턴 대학의 교수이며 *Form, Space, and Order*의 저자로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 프라카쉬는 워싱턴 대학의 교수이자 학과장이다.

5. 맺는 글

역사를 쓰는 일, 즉 역사의 기술은 과학 활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설 같은 픽션의 생산도 아니다. 그것은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해석을 수반하는 과거에 대한 서사를 생산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일종의 비평 행위이며 동시에 나름의 사학 이론을 전제로만 가능한 작업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 서양건축사 교육은 너무나 당연한 이런 측면을 생략한 채 진행되어 왔다. 이런 역사에 대한 태도가 '비'역사적이며 심지어 '반'역사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서양건축사 저술과 교육에는 역사 기술에 가장 중요한 '역사성'(historicity)이 빠져 있다.

벤야민은 (대문자) 역사(History)는 항상 '거짓'이고 앞서의 발전을 그 자신의 최후의 승리를 정당화하는 승자의 서사라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⁶⁸⁾, 서양건축사처럼 이런 지적이 적절한 담론 체계도 별로 없을 것이다. 역사성을 진지하게 의식하게 될 때 우리는 서양건축사의 위상을 고민하게 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건축사 교육이 당대의 건축 문화의 재생산과 깊이 결부되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건축계, 특히 건축 이론, 역사, 비평 분야에서 유럽중심주의, 인종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적 언술에 대한 반성과 연구는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저들 스스로 자신의 역사를 특권화/신화화하는 역사를 비판하고 전복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그런 담론을

67) 이 책은 한국 전통건축에 대해서도 일본, 중국 정도는 아니라 해도 적지 않은 관심을 할애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조선의 경복궁 건축을 설명하면서 창덕궁의 배치도를 삽입하고 있는 오류도 발견된다. 위의 책, 429쪽

68) W. Benjamin, 반성완 편역, '역사철학 테제',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83, 343-355쪽

재생산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의 논점들을 확대해 나갈 때 우리는 상당히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 어떻게 서양건축사 기술에 스며있는 독단과 편견, 특권화를 제거하면서 학생들에게 유럽 건축이라는 세계로 안내할 것인가? 어떻게 기존의 서양건축사가 ‘말하지 않았던’ 내용을 꺼내서 전달할 것인가?

이는 비서구, 동아시아가 담론의 주체가 되어서 유럽 건축사에 대해 발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근대 건축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평 있는 서구 저자의 근대 건축사들을 살펴보면 근대성과 근대 건축의 전지구적 승리와 확산은 언급하면서도 비서구의 노력이나 기여에 대한 언술이 송두리째 빠져있다.⁶⁹⁾ 근대건축사에도 여전히 유럽중심주의는 건재한 것이다. 그 빈틈은 저들이 아닌 비서구가 메워야 할 것이다.⁷⁰⁾ 그때 비로소 진정한 ‘근대건축사’가 가능할 것이다. 비슷하게 우리는 서양건축사를 대체하는 건축사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는 서양건축사라는 ‘제도로서 분과’(Discipline as an institution)를 심문하고 비판하여 학문의 새로운 열린 가능성을 탐색하는 일이 된다. 우선 서양건축사란 과목의 ‘서양’이란 타이틀이 폐기되거나 명칭이 변경되어야 한다. 오만한 ‘서양건축사’(The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는 겸손하고 중립적인 ‘유럽 건축의 역사’(A History of European Architecture)가 되어야 할 것이다.⁷¹⁾ 유럽 건축사는 ‘건축의 역사’의 일부로

서, 다양한 문명의 건축의 하나로써 가르쳐야 한다. 여기서 타 문명의 건축의 역사를 배울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서구 문명의 위대한 건축의 성취에 대한 공부는 서양건축에 대한 전적인 투자 보다 더 생산적인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서구와 우리(동아시아)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구 추수, 서구 선망, 서구 지향을 비껴가면서 서구 건축문화와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양건축사의 ‘해체’이다 해체란 무조건적인 부정이나 제거가 아니다. 교란이고 지양이다.⁷²⁾ 그것은 유럽 건축에 대한 공부나 연구가 필요 없다는가 다른 동아시아 건축공부로 대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유럽건축사 교육은 계속 필요할 것이다. 다만 세계건축사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야 할 것이며, 또한 인류가 달성한 위대한 건축의 일환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이다. 담론이자 신화로서 서양건축사의 해체는 유럽중심주의와 문화제국주의를 지양하고 다문화주의적 입장에 서도록 한다. 그것은 동일성 대신에 차이와 다양성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철학적 태도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한국서양사학회(편), 『유럽중심주의 세계사를 넘어 세계사들로』, 푸른역사, 2009
2. 주경철, 『대항해시대, 해상팽창과 근대세계의 형성』, 서울대출판문화원, 2008

69) 기디온부터 프랭튼까지 거의 모두가 그렇다. 커티스의 것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70) 인도인 저자에 의한 근대건축에 대한 저술은 이런 맥락에서 다소 벗어나려는 시도가 발견된다.

Hasan-Uddin Khan, *International Style*, Tschen, 1988

71) 필자의 건축사 수업의 과목 제목은 ‘서양건축사’가

아니라 ‘건축의 역사’ 1, 2이다.

72) 테리다는 말한다. “해체는 이 (철학적) 개념의 역사가 이익에 연루된 역할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역사로 자처할 때 은혜하고 배제했던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J. Derrida, 박성창 역, 『입장』, 솔, 1993, 29쪽 (본 번역은 가라타니 고진의 의역에 따름.)

74 논문

3. 강혁, 「서구 근대건축사의 기술과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논문, 1992
4. 임석재, 『서양건축사: 기독교와 인간』, 북하우스
5. 이성형, 『콜럼부스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까치글방, 2003
6. *How Not to Teach Architectural History*, JAE, Vol. 34, No. 1, Fall, 1980
7. *Critical Historiography and End of Theory*, JAE, Vol. 52, No.4, May., 1999
8. "Orientalism", *Design Book Review*, Issue 29/30, Summer/Fall, 1993
9. P. Pyla, *Historizing Pedagogy: A Critique of Kostof's A History of Architecture*, JAE, V. 52, N.4, 1999
10. D. Watkin, 우동선 역, 『건축사학사』, 시공사, 1997
11. B. Zevi, 강혁 역, 『공간으로서의 건축』 (*Architecture as Space*), 집문사, 1989(1974)
12. Van de Ven, 고성룡 역, 『건축공간론』 (*Space in Architecture*), 기문당, 1987(1980)
13. S. Kostof, *A History of Architecture: Settings and Rituals*, Oxford U. Press, Oxford, 1985
14. M. Jarzombek, F. Ching, V. Prakash, *A Global History of Architecture*, John Wiley & Sons, Inc., 2007
15. D. P. Crouch, *History of Architecture: Stonehenge to Skyscrapers*, Mc Grow-Hill, NY., 1985
16. M. Trachtenberg, *Architecture: From Prehistory to Post-Modernism*, Harry N. Abrams, Inc., NY., 1986
17. Sir B. Fletcher, *A History of Architecture*, Ed. by J. Musgrove, Butterworths, London, 1987
18. G. B. Nalbantoglu, W. C. Tai, ed., *Postcolonial space(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Y., 1997
19. P. Nuttgens, 윤길순 역, 『건축이야기』 (*The Story of Architecture*), 동녘출판사, 2001
20. K. Jenkins, 최용찬 역,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Rethinking History*), 혜안, 1999(1991)
21. R. F. Jordan, *A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Thames and Hudson, 1969
22. E. H. Gombrich, "In Search of Cultural history" in *Ideals and Idol*, Oxford, Phaidon Press, 1979
23. G. Winke, 이한우 역,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 사상사, 1993
24. J. Glancey, 강주현 역, 『건축의 역사』 (*The Story of Architecture*), 시공사, 2002
25. K. M. Hays, *Architectural Theory since 1968*, Cambridge, The MIT Press, 1998
26. M. Tafuri, 김일현 역, 『건축의 이론과 역사』, 동녘, 2009
27. J. Fontana, 김원중 역, 『거울에 비친 유럽』, 새물결, 2000
28. Z. Bauman, 이일수역, 『액체 근대』 (*Liquid Modernity*), 장, 2005(2000)
29. W. Benjamin, 반성완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83
30. E. W. Said,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Orientalism*), 교보문고, 1992
31. M. Foucault, 이정우역, 『지식의고고학』 (*L'archeologie du savoir*), 민음사, 1992(1969)
32. J. Derrida, 박성창 역, 『입장』, 솔, 1993
33. L. Gandhi, 이영욱 역,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Postcolonial Theory*), 현실문화연구, 2000(1998)
34. R. J. Young, 김택현 역,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트랜스컨티넨탈리즘』 (*Postcolonialism*),

- 박종철출판사, 2005(2001)
35. R. J. Young, 김용규 역, 『백색신화: 서양이론과 유럽중심주의 비판』,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8
 36. E. Hobsbawm, 박지향 역, 『만들어진 전통』 (*The Invention of Tradition*), 휴머니스트, 2004(1983)
 37. A. G. Frank, 이희재 역, 『리오리엔트』 (*Reorient*), 이산, 2003(1998)
 38. J. M. Blaunt, 박광식 역, 『역사학의 함정: 유럽중심주의를 비판한다.』 (*Eight Eurocentric Historians*), 푸른숲, 2008(2000)
 39. J. M. Blaut, 김동택 역, 『식민주의자의 세계 모델』 (*The Colonizer's Model of the World*),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1993)
 40.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언어와 비극』, 도서출판 b, 2004
 41. V. E. Taylor, 김용규 외 역, 『포스모더니즘 백과사전』,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7(2001)
 42. J. D. Hoeg, *Islam Architecture*, Rizzoli, 1987(1975)
 - 43 H. Sterlin, *Islam*, V.1, Taschen, 1996
 44. Hasan-Uddin Khan, *International Style*, Taschen, 1998

접수(2011. 8. 10)

수정(1차: 2011. 11. 17, 2차: 2011. 11. 28)

게재확정(2011. 11. 28)

For the Deconstruction of the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as a Discourse

- A Reflection on the Education of the Architectural
History in Korea -

Hyuk, Khang

(Dept. of Architecture, Kyunsung Univ.)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pedagogical convention of architectural history in Korea, especially that of Western Architecture. Recent institutional change in architectural school in Korea has caused overall restructuring of academic program. In spite of extension in the field of history there was no progress of method and way of thinking. There is no change in the point of view to see the western architecture and its history as a unique and specialized phenomenon in the civilization of mankind. Because of no recognition about for what, for whom, and how to, and because of orientalism, the cultural position of western architectural history and its narrative was not asked. With the help of post-colonialism, de-constructivism and critical historiography this paper tries to show the fundamental premise of western architectural history as a myth and show its prejudice as not being justifiable. The background of the discourse there has been a representation effect with regard to knowledge as a power. we need to escape from this kind of cognitional frame With the analysis of the its premise and narrative we can find it is a historical construct that was made in the age of imperialism. In fact it has a lot of false information and problematic point of view. The Identity and originality of western architecture and its history has no logical reason or foundation if we think that it depends on the difference and comparison with other civilization. For example the explanation of its historical origin western architecture has big difference with Islamic architecture in spite of the resemblance each other. This paper try to show several reasons that discourse of western architectural history can not be survived any longer. So we need to reconstruct new pedagogy with deconstruction for the students of non western, or Korean students. Because it has important effect to see and think about architecture and its history.

Keywords :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as a discourse, Postcolonial theory
and Orientalism, Episteme, Representation, Education of History
